

## 초등학교 시기의 이사 및 전학 경험이 주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영민\*\* · 김석주\*\*\*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시기의 이사 및 전학경험이 아동의 주관적 학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모델에 기반하여 이사 및 전학이 아동의 행동 및 학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초등학교 버전)에서 2014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 2,342명의 영어 및 수학성적을 종속변수로, 1학년부터 이사 및 전학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사회적 변수, 지역적 차이는 아동의 주관적 성적에 영향을 주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지역적 차이를 통제한 후에는, 전학경험만이 초등학생의 영어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라 이사 및 전학에 따른 아동발달에 대한 향후 연구 및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업성취, 이사, 전학, 지역차이

\* 본 연구는 2016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음

\*\* 주저자,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I. 서론

아동이 있는 가족의 주거 이동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험이다. 취업,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가족은 이사를 하고 주거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국내의 이동률은 20% 이하로 지속적인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총인구의 17.1%(849만명)가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나, 2018년에는 14.2%(730만명)가 이사를 하였다(통계청, 2018). 전반적인 국내 이동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직업적 이유로 이동이 많은 청장년층(20-40세)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이동률이 높다(통계청, 2018). 구체적으로, 2018년 국내 이동자(730만명) 중 19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17.7%(129만명)로 보고 되었다(통계청, 201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거 이동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복지에 영향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ebel, 1978; Mehana & Reynolds, 2004; Pribesh & Downey, 1999). 서구 연구에서는 아동의 이사나 전학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Jelleyman & Spencer, 2008; Warren & Font, 2015).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거지 혹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긍정적인 행동 및 정서 발달, 그리고 학업 성취를 나타낸다(Leventhal & Newman, 2010). 특히, 빈곤 혹은 저소득 가정의 이사는 가족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ribesh & Downey, 1999; Ziolo-Guest & MacKanna, 2014).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사과 동반되는 여러 비용과 함께 경제적 압박이 연결되어 가족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킨다(Leventhal & Newman, 2010; Warren & Font, 2015). 특히, 이사 전·후 과정은 부모와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사를 동반한 아동의 전학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여러 심리·행동과 이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Astone & McLanahan, 1994; Pribesh & Downey, 1999; Rumberger, 2003).

하지만, 모든 연구가 일관적으로 이사나 전학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이사” 혹은 “좋은 전학”의 경우,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Hango, 2006; Swanson & Schneider, 1999).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이사 및 전학이 아동발달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되기도

한다(Gasper, DeLuca, Estacion, 2010). 더나가 이사 및 전학의 영향이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린 아동 혹은 초등학생이 청소년 혹은 고등학생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 Larson, 2009; Steinberg & Morris, 2011). 현재까지 이사 및 전학과 아동발달에 관한 일관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못하였지만, 서구의 경우 1970-1980년대부터 이사와 아동발달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직업적으로 이사가 잦은 군인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강학성, 2000; 고성필 외, 2013; 박계영 · 김희순, 2014).

아동복지영역에서 이어나 전학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이사와 아동발달의 인과관계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이사(거주지 이전)과 전학(아동의 학교 변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비록 탐색적 수준이지만,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의 이사와 전학이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발달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모델을 활용하여 이사와 전학에 동반되는 가족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압박이나 긴장 등의 스트레스 과정이 아동의 인지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에 기반을 두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검토

### 1. 가족스트레스모델

이사를 포함하여, 주거지나 주택 상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스트레스모델(Family Stress Model; Patterson, 1982)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Anderson, Leventhal, & Dupéré, 2014; Coley, Leventhal, Lynch, & Kull, 2013; Warren & Font, 2015). 특히, Patterson은 일련의 관찰연구들(Patterson, 1982;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Patterson, 2005)을 통해 가족 과정(family process)의 맥락에서 아동들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이 발생하는 기제(mechanism)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족 스트레스는 “가족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압박(pressure)이나 긴장(tension)”을 일컫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균형 상태에 있는 가족환경이 교란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Boss, 2002, p.12). Patterson(1982)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가정환경은 부모의 정신건강 및 아동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아동의 사회·인지·행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에는 Conger과 동료들은(1992, 1994)은 기존의 가족스트레스모델과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스트레스모델(Family Str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을 제시하였다(Conger et al., 1992, 1994). 기존의 Patterson(1982)의 모델이 일반적인 가족스트레스 상황에 관한 모델이었다면, Conger과 동료들(1992)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구의 경제적 혹은 물질적 어려움에 집중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구가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 일차적으로 부모의 정서·행동적 방식에 문제를 유발하고,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과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부정적인 아동발달로 이어 질 수 있다(Conger et al., 1992).

이러한 가족스트레스모델에 근거하여, 최근 연구자들은 가족의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이동(주거지 이동 혹은 전학)문제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는 이사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예, 주택구입비용, 대출금, 물품구입, 이전비용 등)이 경제적 압박과 연결되어 가족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eventhal & Newman, 2010; Warren & Font, 2015). 주거지 이동과 그 과정 뿐만 아니라, 이동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부모와 아동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의 이사는 아동의 전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주거지 변동과 이로 인한 전학은 당사자인 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또 다른 압박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Astone, & McLanahan, 1994; Pribesh, & Downey, 1999; Rumberger, 2003). 이러한 주거지 이사(혹은 전학)으로 인하여 가족 내부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부모의 정서·행동적 문제나 비합리적인 아동양육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Mistry et al., 2008).

이하나 전학은 가족의 스트레스 증가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또래관계나 지역 활동

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 이동 또는 전학은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내 가용 자원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agan, MacMillian, & Wheaton, 1996; Leventhal & Newman, 2010; Pettit & McLanahan, 2003). 예를 들어 South와 Haynie(2004)의 연구는 전학이 잦은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좁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들은 아동들이 어떤 친구들과 사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나아가 자녀친구의 부모에 대한 인식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또래관계 및 네트워크 수준의 변화는 잦은 이사로 인해 증가된 스트레스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South & Haynie, 2004).

하지만 이어나 전학의 문제는 전통적인 아동복지 연구 분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며 아직까지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거주지 이동)와 전학(아동의 학교 변동)이 아동발달과정에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에서 언급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초등학교 시기의 이사와 전학이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 2. 아동기의 이사 및 전학과 학업

서구 학계에서는 1970-1980년대부터 이사 및 전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다수의 연구가 거주지 및 학교 이동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해왔다(Goebel, 1978; Jelleymen & Spencer, 2008; Mehana & Reynolds, 2004; Pribesh & Downey, 1999). 본 연구가 학업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아동기의 학업성취 수준이 이후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와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성인기의 직업과 소득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Allen & Marotz, 2003; Heckman, 2008).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구의 주거지 이전을 이사로, 그리고 학교의 변경을 전학으로 정의하였다. 전학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예, 전학경험유무나 학교의 변경), 이사는 연구의 환경 및 자료의 특성에 따라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주거하는 주택의 주소지 변경이다

(Leventhal & Newman, 2010). 이러한 주소지 변경을 이사의 조작적 정의로 사용할 경우, 실제 주소를 자기응답형식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이사 전·후 주소 변경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Fowler et al., 2015; Warren & Font, 2015; Ziolo-Guest & MacKanna, 2013). 하지만, 연구대상의 주소지 자료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그보다 더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단위의 변화를 이사의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Census tract이나 Census block과 같은 인구조사통계 집계구의 하위단위를 기준으로 그 단위 변경을 이사로 정의하기도 하며(Anderson et al., 2014), 좀 더 넓은 행정구획인 시(city), 카운티(county), 주(state) 단위 변경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Gasper et al., 2010). 이와 같이 이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사가 주거지 불안정이나 전학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더 나아가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의 스트레스과정에 부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Leventhal & Newman, 2010; Pribesh & Downey, 1999; Ziolo-guest & MacKanna, 2014).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서구에서는 아동기의 이어나 전학이 가족구성원들에게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sup>1)</sup> 최근에는 고급통계기법이나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대체적으로 이어나 전학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14; Fowler et al., 2015; Schmitt, Finders, & McClelland, 2015). 예를 들면, Fowler와 동료들(2015)은 미국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NSCAW) 자료를 사용하여 4세에서 14세 사이 아동(N=2,442)을 3년간 추적한 종단자료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위험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이사를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인지적 발달정도가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Fowler et al., 2015).

하지만 모든 연구들이 이어나 전학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지는 않는다. 몇몇 연구에서는 거주지 이전이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학업성취와 긍정

1) 이에 관한 자세한 문헌은 Adam(2004), Jolleyman & Spencer(2008), Mehana & Reynolds(2004) 등을 참조

적인 관계를 보여 주었다. 캐나다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거주지 이전은 장기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Hango, 2006). 또한 미국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88-94(NELS: 88-94) 자료(N=16,489)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8학년과 10학년 사이에 이사나 전학은 장기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wanson & Schneider, 1999).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사 및 전학이 아동의 행동 문제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Gasper et al., 2010).

위에서 살펴본 상이한 연구결과들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이사나 전학이 가족이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발달단계(연령)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Anderson et al., 2014; Coley et al., 2013).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기의 이사나 전학은 고등학생 시기의 이동과는 다른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아동의 경우 급격한 생물학적·육체적 성장과 더불어 정서·행동·인지적 기술의 발달을 빠르게 경험하게 된다(Shonkoff & Phillips, 2000). 그리고 이들은 자기 주변의 환경적 스트레스나 가정의 불안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Evans, 2014). 반면, 고등학생들은 더 독립적인 성향이 보이며, 부모나 가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사나 전학은 어린 아동이나 초등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Brown & Larson, 2009; Steinberg & Morris, 2011).

국내의 경우, 이사나 전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증연구가 많지 않다.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과 전학을 자주 경험하는 군인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군인가족의 자녀들이 잦은 거주지 이전과 전학으로 인해 친구관계, 낯선 환경, 학업, 정서 및 심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학성, 2000; 고성필 외, 2013; 박계영·김희순, 2014). 반대로 학령기 군인자녀들이 일반 가정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나 행동문제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존재하므로 이사나 전학이 반드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최운정, 2005). 또한 한국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이나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이사하는 성향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이사나 전학이 아동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화룡·조창희, 2012).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이사와 아동의 전학 경험이 주관적 학업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비록 실제 행정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지 이전 기록이나 전학 기록, 그리고 표준화된 전국단위 성취도평가들을 사용하는 것이 측정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전국단위 행정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해 자기보고(self-report)를 통한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2010년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모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2,342명의 최초표본을 2014년 5학년이 될 때까지 연 1회 반복하여 추적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를 위해 2009년 교육부의 전국 학교통계를 기준으로 표집틀로 하여,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조사할 표본 수를 할당하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고, 부모들에게는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조사표를 기입하였다. 1차년도 대비 5차년도의 원표본 유지율은 90.1%(2,342명 중 2,110명)로 나타났다. 추적 실패 및 무응답 등으로 인해, 연구의 변수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결측치를 가진 연구 대상은 전체의 23%였다. 결측치들은 연쇄방정식에 의한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 with Chained Equations)방법을 통해 처리되었다. 각 데이터로부터 획득한 분석결과들은 루빈의 법칙을 이용하여 결합하였다(Rubin, 1987).



## 2. 변수 및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문항 중에 하나인 “성적: 과목별 주관적 평가” 중 수학과 영어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을 이용한 이유는 각 과목별 성적에 관한 다른 문항이 아동청소년 패널 초등학교 버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수학과 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 두 과목이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가장 큰 함의를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Cho, 2014; Hwang, 2001; Seo & Taherbhai, 2009). 이 변수들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매우 잘했다=1, 잘한 편이다=2, 보통이다=3, 못한 편이다=4, 매우 못했다=5).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분화 하여 1부터 2의 값은 “잘한 편(=1)”으로, 3부터 5의 값은 “못한 편(=0)”으로 재분류하였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아동의 이사과 전학이다. 이사는 아동의 주소 변경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연 1회 측정이 되었고, 실제 주소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서 시군구 단위만 확인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시군구 단위의 주소지 변경이 보고된 아동은 1로, 이사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은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전학의 경우, 아동청소년 패널에 지난 1년간 전학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존재한다. 이를 이용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전학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1로, 한 번도 전학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0으로 측정하였다<sup>2)</sup>.

### 3) 통제변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이사 및 전학과 학업성적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여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모델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초등학교 5학년 기준). 먼저 아동의 나이(연속변수), 성별(남자=1, 여자=0)이 포함되었다. 부모 변수로는, 부와 모의 연령

---

2) 이사과 전학을 이항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5년간 이사나 전학을 경험한 학생이 각각 12%와 19%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더 세분화한 서열변수, 또는 연속변수로 간주하기에는 통계분석상 매우 제한적이었다.

(세), 학력(대졸이상-기준집단, 전문대졸, 고졸)을 고려하였다. 그 이외의 변수로 형제 유무(예=1, 아니요=0), 조부모 동거여부(예=1, 아니요=0), 가구소득(1차~5차년도 평균 소득 로그변환), 모 근로(예=1, 아니요=0), 거주 지역(도-기준집단, 광역시, 서울), 주거형태(단독주택-기준집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를 포함하였다.

### 3. 분석방법

기술통계를 통하여 종속, 독립, 통제변수들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다음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Pearson's  $r$ )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후, 이사 및 전학과 주관적 학업평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analysis)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그 영향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료의 결측처리 및 분석을 위해 STATA 14.0을 활용하였다(StataCorp, 2015).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표 1>은 연구 대상의 주요 변수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한다.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12%의 아동이 1회 이상의 이사를 경험하였고, 19%의 아동이 1회 이상 전학을 하였다. 학업평가를 보면, 아동 중에 65%가 영어를, 60%가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다. 아동의 평균나이는 11.3세였고, 51%가 여학생이었고, 88%가 형제나 자매가 있고, 6%가 조부모가 있는 가정에 살고 있었다. 부모님에 경우, 부의 평균나이는 42세, 모의 평균나이는 40세였다. 부의 40%와 모의 45%가 고졸이었으며, 부의 42%와 모의 32%가 대졸이었다. 연구대상의 10%가 서울에, 32%가 도 단위에, 나머지 58%가 광역시에 거주하였다. 끝으로, 대다수인 7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이 15%, 연립주택이 8%, 다세대주택이 6% 순으로 주거형태를 보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N=2,342)

	Mean or %	SD
종속변수		
영어(잘한 편=1)	64.7%	
수학(잘한 편=1)	60.0%	
독립변수		
이사(경험 있음=1)	12.0%	
전학(경험 있음=1)	19.4%	
인구학적 변수		
아이 성별(남자=1)	51.4%	
아이 나이	11.3	0.01
어머니 나이	39.7	0.08
아버지 나이	42.3	0.09
형제·자매 있음	88.2%	
조부모 동거	5.8%	
사회경제적 변수		
어머니 고졸	44.7%	
어머니 전문대졸	23.6%	
어머니 대졸	31.7%	
아버지 고졸	39.6%	
아버지 전문대졸	18.3%	
아버지 대졸	42.1%	
가구연간소득(로그변환)	8.4	0.01
어머니 근로	62.8%	
거주 지역		
도 단위거주	58.0%	
서울 거주	9.9%	
광역시 거주	32.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5.0%	
아파트	71.4%	
연립주택	7.5%	
다세대주택	6.0%	

## 2.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표 2>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영어와 수학성적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학은 영어 및 수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사는 영어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N=2,342)

	1	2	3	4	5
1. 영어(잘한 편=1)	1				
2. 수학(잘한 편=1)	.317***	1			
3. 이사(경험 있음=1)	-.054**	-.017	1		
4. 전학(경험 있음=1)	-.095***	-.052*	.503***	1	
5. 아동 성별(남자=1)	-.061**	.068***	-.022	.013	1

\* $p < .05$ , \*\* $p < .01$ , \*\*\* $p < .001$

## 3.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표 3>의 모델 1은 통제변수만 포함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의 결과이다<sup>3)</sup>. 영어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이 낮았으며(OR=.765,  $p=.005$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성적이 낮았다(OR=.690,  $p=.019$ ).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들에 비해, 어머니가 고졸이거나(OR=.673,  $p=.007$ ) 아버지가 고졸인 경우(OR=.621,  $p<.001$ ) 학생들의 주관적 성적평가가 낮았으며, 가구의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OR=1.224,  $p=.020$ ). 지역적 차이에서, 도 단위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광역시 거주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OR=1.280,  $p=.019$ ).

수학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적이 높았으며(OR=1.369,  $p<.001$ ), 형제나 자매가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통제 및 독립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Pearson's  $r(0.8)$ )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높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10)이 관찰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OR=.664, p=.003$ ).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인 학생이 어머니가 고졸인 학생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OR=.750, p=.042$ ). 가구소득은 수학성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OR=1.219, p=.015$ ). 도 단위 거주 학생에 비해 서울 거주 학생이 성적이 높았으며( $OR=1.733, p=.002$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다세대 주택 거주 학생의 성적이 낮았다( $OR=.597, p=.023$ ).

모델 2에는 독립변수인 이사과 전학을 투입하였다. 영어의 경우, 전학을 경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OR=.718, p=.026$ ). 하지만 이사 경험은 영어 학업 평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통제변수들을 보면, 모델 1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남학생( $OR=.763, p=.005$ ), 형제나 자매가 있는 학생( $OR=.675, p=.013$ ), 어머니가 고졸이거나( $OR=.663, p=.003$ ), 아버지가 고졸( $OR=.621, p<.001$ ) 혹은 전문대졸( $OR=.666, p=.008$ )이 경우 상대적으로 영어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고( $OR=1.245, p=.011$ ), 도 단위에 비해 광역시 거주하는 학생들은( $OR=1.286, p=.026$ ) 상대적으로 영어 성적이 높았다.

수학의 경우, 이사는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고, 전학경험은 10% 유의수준에서 부적 관계를 보였다( $OR=.802, p=.092$ ). 통제변수들의 경우에 그 결과가 모델1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 $OR=1.368, p<.001$ ), 형제자매가 있거나( $OR=.664, p=.003$ ), 모가 고졸인 경우( $OR=.706, p=.017$ ), 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OR=.611, p=.030$ ) 학생들이 성적이 낮았고, 반대로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과( $OR=1.204, p=.023$ ),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 $OR=1.725, p=.002$ )들의 성적이 높았다.

〈표 3〉 이사 및 전학과 주관적 성적평가의 관계(N=2,342)

	모델 1		모델 2	
	영어	수학	영어	수학
	OR(SE)	OR(SE)	OR(SE)	OR(SE)
(상수)	.073(.147)	.041(.079)	.016(.244)	.057(.111)
인구학적 변수				
아동 성별(남자)	.765(.072)**	1.369(.125)***	.763(.074)**	1.368(.125)***
아동 나이	1.182(.187)	1.257(.192)	1.139(.187)	1.239(.190)
모 나이	1.038(.020)	1.016(.019)	1.038(.021)†	1.020(.021)
부 나이	.979(.017)	.982(.017)	.977(.018)	.978(.017)
형제·자매	.690(.109)*	.644(.097)**	.675(.106)*	.644(.097)**
조부모 동거	.958(.198)	1.262(.260)	1.005(.212)	1.257(.263)
사회경제적 변수				
모학력(기준:대졸)				
고졸	.673(.098)**	.750(.106)*	.663(.093)**	.706(.102)*
전문대졸	.927(.141)	.852(.120)	.927(.133)	.833(.118)
부학력(기준:대졸)				
고졸	.621(.086)***	.865(.119)	.621(.086)***	.875(.122)
전문대졸	.068(.101)**	.872(.128)	.666(.102)**	.892(.128)
가구소득(로그)	1.124(.106)*	1.219(.100)*	1.245(.106)*	1.204(.098)*
모 근로	.859(.087)	.871(.085)	.845(.082)†	.864(.083)
지역(기준=도 단위)				
서울 거주	.924(.160)	1.733(.310)**	.942(.158)	1.725(.307)**
광역시 거주	1.280(.135)*	1.141(.114)	1.286(.145)*	1.161(.117)
주거(기준=단독주택)				
아파트	1.100(.148)	1.040(.137)	1.127(.158)	1.053(.145)
연립주택	.774(.163)	.771(.161)	.749(.159)	.799(.166)
다세대주택	.797(.182)	.597(.136)*	.840(.193)	.611(.139)*
독립변수				
이사(경험있음=1)			.990(.163)	1.054(.170)
전학(경험있음=1)			.718(.105)*	.802(.105)†
<i>F</i> -test <sup>a)</sup>	<i>F</i> (17, 49367.0)= 6.25***	<i>F</i> (17, 29680.1)= 4.36***	<i>F</i> (19, 41934.2)= 5.88***	<i>F</i> (19, 22860.8)= 4.08***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OR=Odds Ratio, SE=Standard Error

a) *F*-test of the overall significance: STATA의 MI Impute(결측치 다중대체방법)를 활용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Global tests of parameters로 *F*-test의 결과가 제시됨

## V. 결론

본 연구는 이사 및 전학의 경험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성별, 형제·자매 여부, 부모의 학력, 소득은 아동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영어와 수학의 성적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학 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 차이에 있어서도, 광역시 거주 학생의 영어 성적이 도 단위 학생에 비해서 높았으며, 서울 거주 학생의 수학 성적이 도 단위 학생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즉, 농어산촌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인 도 단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학업성적이 낮게 나타났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아동의 학습을 위한 자원이 적은 지역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도중수, 2005).

본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시기의 전학 경험은 주관적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학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이은택·주현주·유난영, 2014). 이를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거주지 변경과 주거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자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거주지 변경의 원인에 따라 이사 및 전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의 배경 원인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의 교사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생들과의 면담시간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급격한 주거환경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주거 불안정을 겪은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경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며(Desmond, 2012),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Warren & Font, 2015),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Pribesh & Downey, 1999; South & Haynie, 2004).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변화가 잦은 아동과 그 가족들은 새롭게 이사를 간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사회서비스와 프로그램 및 지원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대상자들에게 원스탑 서비스의 형태로 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유관기관(예, 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종합복지관, 보건소)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주거지의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거나 열악한 거주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Sandstorm & Huerta, 2013).

또한 전학 경험이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복지영역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정책으로 인하여 건설된 신도시지역의 경우, 다수의 전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이응택 외, 2014). 이와 반대로, 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학교통폐합은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재구조화하고 전학생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약 5,400개 학교가 통폐합 되었고 초등학교가 5,053개교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김경애·이지미·김근태·김두환·남기곤, 2018). 따라서 인구감소와 학교통폐합으로 인하여 지역내 발생하는 전학생들과 기존 재학생들의 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사 및 전학은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의 경우, 지역 상황 혹은 변화를 측정하여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학업 변화의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수준의 자료(예, 지역의 빈곤률, 주택가격, 도시화 정도 등)와 개인변수(학업성취의 변화)의 결합이 요구된다. 같은 맥락으로, 전학의 경우 학교의 특성의 변화(예, 전학 전·후의 교육환경의 변화)와 아동 성적의 변화를 비교·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찰연구(observation study)의 자료가 가지는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2차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는 학업성적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예, 사회경제적·심리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사 및 전학에 미치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고려하지 못하여,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이사와 전학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한 정보가 고려되지 않은 점도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사 및 전학에 미치는 도구변수를 고려하여, 이사와 전학이 학업성



적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종속변수의 경우, 객관적 시험 성적이 아닌 과목별 주관적 평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측정 오차나 편이의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을 통해 획득한 학업 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나,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육영역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이사 및 전학의 영향 대한 보다 보편적이고 합의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학성 (2000). 군인자녀의 전학, 학교적응, 학업성취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성필 · 이정동 · 최정환 · 정의영 (2013).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이주가 직업군인의 복무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4(1), 69-87.
- 김경애 · 이지미 · 김근태 · 김두환 · 남기곤 (2018).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도종수 (2005).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지역격차 실태와 대책. 청소년학연구, 12(4), 305-334.
- 박계영 · 김희순 (2014). 초기 청소년 군인자녀의 적응유연성과 영향요인. 군진간호연구, 32(1), 66-79.
- 이응택 · 주현주 · 유난영 (2014). 청소년의 전학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의 관계에서 우울 · 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9, 91-113.
- 이화룡 · 조창희 (2012). 서울시 자치구별 초 · 중등학생 이동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9), 21-28.
- 최윤정 (2005). 학령기 군인 자녀의 삶의 질과 행동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8). 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kostat.go.kr/portal/>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5차 조사 유저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dam, E. K. (2004). Beyond quality: Parental and residential stabi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3, 210-213.
- Allen, K., & Marotz, L.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Albany, NY: Delmar.
- Anderson, S., Leventhal, T., & Dupéré, V. (2014). Exposure to neighborhood affluence and pover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behavior.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8(3), 123-138.
- Astone, N. M., & McLanahan, S. S. (1994). Family structure, residential mobility, and school drop out: A research note. *Demography*, 31, 575-584
- Boss, P. (2002).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Brown, B. B., & Larson, J. (2009). Peer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Vol. 2, pp. 74–103). Hoboken, NJ: Wiley.
- Cho, J. (2014).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exploring the reasons why South Korean students come to a university in the midwest*. (M.A. Thesis).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 Coley, R. L., Leventhal, T., Lynch, A. D., & Kull, M. (2013). Relations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he well-being of low-income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775-1789.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3), 526-541.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Desmond, M. (2012). Eviction and the reproduction of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8*(1), 88-133.
-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 77–92.
- Fowler, P. J., McGrath, L. M., Henry, D. B., Schoeny, M., Chavira, D., Taylor, J. J., & Day, O. (2015). Housing mobility and cognitive development: change in verbal and nonverbal abilities. *Child Abuse & Neglect, 48*, 104-118.
- Gasper, J., DeLuca, S., & Estacion, A. (2010). Coming and going: Explaining the effects of residential and school mobility on adolescent delinquency. *Social Science Research, 39*(3), 459-476.
- Goebel, B. L. (1978). Mobility and education.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11*-16.
- Hagan, J., MacMillian, R., & Wheaton, B. (1996). New kid in town: Social capital and the life course effects of family migration on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368-385.
- Hango, D. W. (2006). The long-term effect of childhood residential mobility on

- educational attainment. *Sociological Quarterly*, 47, 631-664.
- Heckman, J. J. (2008). Schools, skills, and synapses. *Economic Inquiry*, 46, 289-324.
- Hwang, Y. (2001). Why do South Korean students study hard? Reflections on Paik's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6), 609-618.
- Jelleyman, T., & Spencer, N. (2008). Residential mobility in childhood and heal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2, 584-592.
- Leventhal, T., & Newman, S. (2010). 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9), 1165-1174.
- Mehana, M., & Reynolds, A. J. (2004). School mobility and achievement: A meta-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1), 93-119.
- Mistry, R., Lowe, E., Benner, A., & Chen, N. (2008). Expanding the family economic stress model: Insights from a mixed-method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196-209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Publishing.
- Pribesh, S., & Downey, D. B. (1999). Why are residential and school moves associated with poor school performance? *Demography*, 36, 521-534.
- Rubin, D. B. (1987).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New York, NY: Wiley.
- Rumberger, R. W. (2003).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tudent mobility. *Journal of Negro Education*, 72, 6-21.
- Sandstorm, H., & Huerta, S. (2013). *The negative effects of instability on child development: A research synthesis*. Washington, DC: First Focus and the Urban Institute.
- Schmitt, S. A., Finders, J., & McClelland, M. M. (2015). Residential mobility, inhibitory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school.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6, 189-208.
- Seo, D., & Taherbhai, H. (2009). Motivational beliefs and cognitive processes in mathematics achievement, analyzed in the context of cultural differences: A Korean elementary school example.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0(2),

193-203.

- Shonkoff, J. P., & Phillips, D. A. (Eds.).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South, S. J., & Haynie, D. L. (2004). Friendship networks of mobile adolescents. *Social Forces*, 83(1), 315-350
- StataCorp (2015).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4*. College Station, TX: StataCorp LP.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 Swanson, C. B., & Schneider, B. (1999). Students on the move: Residential and educational mobility in America's schools. *Sociology of Education*, 72(1), 54-67.
- Warren, E. J., & Font, S. A. (2015). Housing insecurity, maternal stress, and child maltreatment: An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Social Service Review*, 89(1), 9-39.
- Ziol-Guest, K. M., & McKenna, C. C. (2014). Early childhood housing instability and school readiness. *Child Development*, 85(1), 103-113.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residential and school mobility on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ungmin Cho\* & Seok Joo Kim\*\*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residential and school mobility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family stress model, this study explored how residential and school mobility affects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outcomes. Using the sample of 2,342 5th grader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elementary school version),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English and math achievemen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residential and school mobility from 1st to 5th grade as an independent variable. Results showed that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geographical differenc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After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geographical differences, this study found that only school mobility negatively influenced on English achievement. Based on the key findings, this study provided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social work services and policies.

Keywords: Academic achievement, residential mobility, school mobility, geographical difference

[논문투고일: 2019.09.29, 심사일: 2019.10.29, 심사완료일: 2019.11.18]

---

\* Research Associat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aegu University